

김시현 Kim Sihyun (b.1971)

📷 @art_shkim

학 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인천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 인 전 2024 갤러리아트리에 초대전 (갤러리아트리에, 헤이리)
2023 갤러리베누스 초대전 (갤러리베누스, 하남)
온유갤러리 초대전 (온유갤러리, 안양)
2022 줌갤러리 기획 초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1 갤러리 비디 초대전 (갤러리 비디, 서울)
2020 갤러리 라메르 초대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19 갤러리 아트슌 초대전 (갤러리 아트슌, 부산)
2018 갤러리 藝 초대전 (갤러리 藝, 안동)
2017 갤러리 두 초대전 (갤러리 두, 서울)
2016 갤러리 이즈 기획초대전 (갤러리 이즈, 서울)
2015 갤러리 일호 초대 개인전 (갤러리 일호, 서울)
2014 갤러리 JJ초대 개인전 (갤러리 JJ, 서울)
2013 수호갤러리 초대 개인전 (수호갤러리, 분당)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4 현대미술교류전-아트드림특별기획전 (갤러리카르티즘,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2023 미메시스아트뮤지엄 Objet, Object, Objection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주)
갤러리박영기획, 정전70주년-DIVISION THE VISION, THE VISION OF UNITY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
고래문화재단기획-오래된 새로움展 (장생포문화창고, 울산)
경계-Hyper-Realism 기획전 (금샘미술관, 부산)
'부분의 합-회복과 결속' 해외특별기획전 (Sisles+Gallery M9, Paris)
화랑미술제 (COEX, 갤러리박영, 서울)
2022 재현과 재연 展 : Seeing Beyond (롯데갤러리본점, 서울)
KIAF SEOUL (COEX, 갤러리박영, 서울)
코리아나화장박물관기획전-福을 담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서울)
서울클럽 Artist 展 (갤러리 박영기획, 서울클럽)
호리아트스페이스특별기획-우크라이나난민구호기금마련전 (호리아트스페이스, 서울)
그 외 다수

비 엔 날 레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더할나위없는展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광주)
2010 방글라데시비엔날레-신 사실주의, 그 새로운 공간' (방글라데시, 다카)
2010 부산비엔날레-한·중·일 극사실작가展 (부산시청전시실, 부산)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기획특별전 3>Flag Art - "바람과 흔적" (청주시 정북동토성)

작 품 등 재 <중학교 미술1>천재교과서 P.62 실림
<고등학교 미술창작>해냄에듀 P.51 실림
<중등 미술교과서 창비교육> P.42 실림

작 품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서울시립미술관 / 경기도미술관 / 양평군립미술관 / 주일
한국대사관저 / 중동 예멘대사관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저 / 한남더힐커뮤니티센터 /
바레인대사관 / 이월중학교 / 학성초등학교 / 호텔프리마 / (주)시몬느 / 코카-콜라 /
제주그랜드하얏트 / 박영장학문화재단 / 미메시스아트뮤지엄

[Artist's Note]

보자기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소통방법

예술 언어는 문자언어나 음성언어가 표현하기 힘든 심미적이고 미묘한 인간 내부의 감성이나 사고 등을 전달하고 소통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특별히 회화와 같은 시각예술을 살펴보면 선이나 색 혹은 명암과 같은 조형요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형요소가 만들어내는 형태나 이미지가 상징하거나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회적 의미나 심리적 정서까지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을 많은 미술작품에서 발견하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이미지의 상징 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미지의 상징 작용을 통한 시각예술 언어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 다른 언어체계와 달리 이 시각예술 언어만이 갖는 차별화된 소통영역이 무엇일까에 대해 범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배태하고 있는 감성이나 정서 혹은 의미, 가치와 같은 비언어적 범주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 자신이 지역적, 민족적으로 한국인이라는 것과 생물학적, 성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 보자기 혹은 보따리로 불리울 수 있는 한국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보자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보관수단이자 전달수단이기도 언어에 있어서 정보의 저장수단이자 전달수단이 문자인 것처럼 보자기는 소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자기의 상징적 의미의 껍질들을 읽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정서 혹은 의미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 상징적 이미지가 갖는 예술언어적 소통의 내용과 범위를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다.

보자기는 본래 단순한 실용도구에만 그치지 않고 종교적 염원과 바람을 위한 주술적 도구이자 예절과 격식을 갖추기 위한 의례용 도구이기도 하다. 보자기를 살펴보면 천 위에 복(福)이나 수(壽)와 같은 글씨를 넣어 행복과 장수를 비는 주술적인 소망을 담기도 하고 십장생, 용, 봉황 등과 같은 품위와 격 그리고 멋을 위한 소재로 여러 가지 색채와 문양을 넣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자기 그 자체가 기호와 상징 그리고 색채와 장식으로 구성된 예술품이자 주술적 도구이며 예를 갖춘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선물을 보낼 때 선물에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아 보냈던 것처럼 보자기라는 물건은 운반을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마음의 소통 도구였던 것이다.